

‘2015 건설의 날, 해외건설 50주년 및 7,000억 달러 수주 달성 기념식’ 금탑산업훈장 수훈

지난달 25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인사 및 국회의원, 건설단체장, 건설업계 임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만 건설인들의 축제인 ‘건설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해외건설 수주 7,000억 달러 달성! 대한민국 건설의 힘, 세계 속에서 내일의 행복을 건설하다!’라는 주제로,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 반세기를 기념하고 해외건설 수주 누계 7,000억 달러 달성을 축하하는 무대였다. 기념식에서는 해외건설 등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 공로가 많은 건설인 156인이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 중 산업부문 최고 영예 표창인 금탑산업훈장은 종합건설업계에서 최삼규 이화공영(주) 대표이사와 이종연 경일건설(주) 대표이사가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건설업계의 수장 최삼규 대표이사는 이화공영을 45년 간 경영해 오며 국책사업인 교량, 철도, 도로, 택지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고, 건설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종연 대표이사는 수질 개선, 하천 복원 및 수변 환경 조성 등 물 부족과 홍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고, 기업 연구소를 만들어 콘크리트 거푸집 패널 특허를 받는 등 기술 개발에 진력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오랜 기간 나눔경영을 펼쳐온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편집자 주>



최삼규 이화공영(주) 대표이사



이종연 경일건설(주) 대표이사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부조리 없는 클린 산업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

최삼규 이화공영(주) 대표이사

산업계 최고의 표창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0년 동안 국토를 새롭게 창조한 건설산업과 건설인의 열정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 훈장은 건설산업과 건설인을 대표해 받는 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00만 건설인과 힘을 합하여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건설의 날은 해외건설 50주년 및 누적 수주 7,000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로 치러져 더욱 의미가 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계가 지난 1965년 해외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동토의 칼바람을 헤치고 이룬 7,000억 달러 금자탑은 건설인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설은 해외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넘어 창조경제의 개척자로서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건설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금탑산업훈장 수훈은 오랜 업력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기업간 상호 협력에 앞장서 온 점 등이 높히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56년 설립된 우리 회사는 교량, 철도, 도로, 택지 개발, 상하수도 공사 등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 및 서울 건설에 헌신해 왔습니다. 아울러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이윤만을 고집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실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지 못해도 협력사에 매달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경영 자금 지원과 우수협력업체 포상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무차입 경영으로 영업 적자가 한 번도 없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로 판단됩니다.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많은 대외 활동 및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셨고, 사회공헌활동 등 그동안 성과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건설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을 거쳐 현재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계를 대표하여 정책과 제도 개선,

건설산업 미래 비전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제안을 통해 업계에 나갈 길을 제시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건설공사 제값 받기와 불공정 계약 개선 등 업계의 당면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으며, 실제로 여러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는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평소 신념에 따라 건설산업의 나눔 문화와 사회적 책임 확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건 단련과 견협 등이 그동안 진행한 사업들을 꼽자면 사랑의 집짓기 사업, 끝전나눔 행복캠페인, 사랑의 연탄나눔, 재해를 입은 건설 근로자를 후원하는 희망나눔, 건설 관련 전공학생 장학금 지원, 국민 안전과 준법경영 실천 결의대회, 건설업 윤리경영 시상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설산업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을 예나 지금이나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이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원로로서 건설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건설산업은 과거 폐허 속에서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역군이었고, 향후에도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지만, 오늘날 건설산업은 오랜 침체와 일부 잘못된 관행 답습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과 경영 합리화, 투명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건설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인들은 건설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건설인들은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부조리 없는 클린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중소 업체 고사지경… 건설업계 상생 발전 위해 진력 다할 것”

이종연 경일건설(주) 대표이사

이번 ‘2015 건설의 날’ 행사에서 경북 업체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과분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일건설은 지난 1987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건설업체 최초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고, 이후 27여 년 만에 금탑산업훈장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은 지역의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600여 개 회원사에 수여되는 상을 제가 대신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일건설은 오랜 업력에 상응하는 기술력과 그 경쟁력을 통해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일건설의 사훈은 “자유, 명예, 봉사”입니다. 건설업체의 사훈으로는 생소한 것이지만 인간 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항상 앞서가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최초로 전산실 설립 및 서버를 도입하여 업무 전산화를 이뤘으며, 무인크레인 설계 제작 등으로 현장 기계화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가족화를 위해 각종 복지제도 정비와 철저한 안전관리, 현장마다 ‘건설산업 상생협약체’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건설업 발전을 위해 대외 활동 및 제도 개선 노력에 힘쓰고 계시는데 그동안 성과는 어떠하십니까?


먼저,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를 추진한 결과 공사비 산정 기준이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공단가 활용을 통한 표준시장단가로 개선되었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 모든 공사에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 및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법안의 철회를 추진하여 법안 상정을 저지하였

고, 경북 지역의 태풍 산바로 인한 도내 피해시설 대형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를 위해 노력한 결과 발주기관에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업체의 관련 공사 수주를 확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장학사업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동안 추진하신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 양성을 위한 경일장학제도는 1974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억 7,000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독거노인 및 희망의집 봉사활동, 재해 발생시 위문금 전달 등 지속적인 나눔 및 실천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사내 윤리경영 강령을 제정하고 윤리경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하청업체로부터 어떠한 항응도 받지 않는 투명한 기업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업 리더로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 1997년 IMF 시절 이후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역의 중·소 업체는 고사 직전입니다. 대·중·소 업체가 서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대대-소소” 현상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SOC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업체간 상생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글 : 이형우 편집장, 인흥진 연구원